

LG CNS, 바이오정보 보호사업 확대

바이오인식 기술 보유 3사와 협의체 구성 ... IT·BT 융합 시너지 창출

LG CNS가 개인의 지문, 홍채, 지정맥 등 바이오정보 보호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LG CNS는 바이오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G엔시스, LG히다찌, 아이리사아이디 등과 함께 <LG 바이오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8월5일 발표했다.

각 사는 협의체를 통해 바이오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사업의 시장 창출, 마케팅 정보공유, 기술개발 등에 협력하게 된다.

LG CNS는 전자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진과 지문 정보를 보호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LG엔시스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주민등록증과 신청서를 스캐닝하는 기술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적용해 왔다.

또 LG히다찌는 기존 지문인식과 비교했을 때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보안 강도가 한 단계 높다고 평가받는 지정맥 인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의 국내 홍채인식시스템의 총 판매법인이며 홍채 인식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아이리사아이디도 협의체에 참여했다.

LG CNS 신재철 사장은 “급격하게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IT와 BT의 결합은 국내 IT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IT와 BT를 융합시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보안시장인 만큼 협의체간 경쟁력 있는 부분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06>